

“마스크 전면 해제 시기, 지금 단정 어려워”

감염병 자문위 5월 해제 거론...당국은 신중론 “국내외 방역 상황·신종 변이 발생 종합 평가”

지난달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2단계 전면 해제 시기를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관리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오는 5월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방역 당국은 실제 유행 안정세가 이어지는지 동향을 살펴야 한다는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전면 해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달 30

일 부분 해제됐다.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에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방역 당국은 국내 코로나19가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 조정되는 경우, 법정감염병의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떨어

질 때 2단계로 마스크를 전면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임 단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가 다른 호흡기 감염병보다 사망률이 높고 신종 변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내외 방역 상황과 신종 변이 발생 상황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이후의 단계 조정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감염병 자문위는 2단계 전면 해제 시기로 3개월 뒤인 5월을 언급한 바 있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방역 당국은 다소 헛갈릴 수 있는 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설

명을 내놨다.

가령 대형마트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아니지만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 가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약국에 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통근·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대중교통으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 기차역 대기공간이나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임 단장은 “아직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보인다”며 “휴가분한 기분이 들면서도 조심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 위험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되 개인의 안전과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실내 환기와 손 씻기 등 생활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나주경찰,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교육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1월 31일 나주 문화예술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발달식 행사에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3원칙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희기자



순천소방, 소방드론 운용자 특별구조훈련 실시

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최근 정강용 교수를 초빙하여 다목적 전술훈련 등 청사일대에서 소방드론 운용자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강진소방, 겨울철 야영장 가습화재훈련 실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 1월 31일 야영장에 난방 및 취사시설 등 사용시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야영장 화재예방 무각본 훈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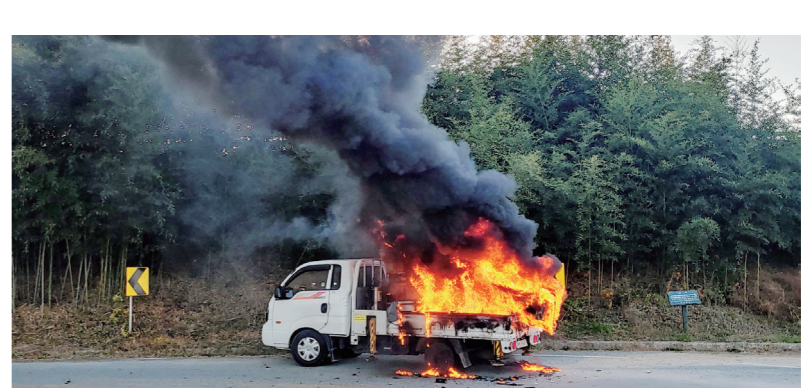
강진=김영일기자



장흥소방 119구조대, 동계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 119구조대에서는 1월30일부터 1월31일까지 이틀간 광주 남부대학교 다이빙 풀장에서 2023년 동계수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담양소방, 차량용·주방용소화기 비치 홍보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가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화재와 주방화재에 대비해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소방 119구조대, 교통사고 현장 신속출동 안전구조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 119구조대는 1월 31일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삼거리에서 난 교통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안전하게 인명 구조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BN.1, 국내 다섯 번째 우세종...“유행 영향 없을 것”

질병청, 주간 코로나 위험도 및 변이 검출률 발표 “감소 추세, 중증 관련 없어...유행 반전 없을 듯” 위험도 2주째 ‘낮음’...전주대비 확진자 29% 감소 확진 22%가 재감염...“면역 감소, 추가접종 해야”

코로나19 오미크론 BN.1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50%를 넘기면서 국내 다섯 번째 우세종으로 올라섰다. 단 당국은 우세종 교체가 현재 감소 추세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BN.1의 경우 전체 검출률은 48.9%, 국내검출은 50.4%, 해외유입은 35.3%로 나타났다.

당국은 특정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으면 우세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써 BN.1은 델타, BA.1, BA.2, BA.5 변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다

섯 번째 우세종이 됐다.

국내 감염을 기준으로 BF.7, BA.2.75, XBB.1.5 변이 바이러스는 전주 대비 검출률이 증가했다. 기존 우세종이었던 BA.5의 검출률은 20.2%에서 18.3%로 감소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유행 상황은 정점을 지나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BN.1이 우세종화되는 것이 유행을 반전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단장은 “BN.1의 특성을 봤을 때 중증도와 관련성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그렇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 주간 위험도 평가는 2주 연속 낮음 수준이다.

임 단장은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의 감소 추세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대비 29% 감소한 14만8020명,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1146명이다. 주간 신규 확진자 중 8461명은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했다.

전과력을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 미만을 4주째 유지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22.81%로 직전 주 21.48%보다 증가했다. 지난달 22일 기준 누적 확진자 2848만9494명 중 재감염 추

정 사례는 4.59%인 131만5716명이다.

임 단장은 “지난해 2-3월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감염됐고 그 이후 면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된다”며 “아직 4차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이 많아서 재감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단장은 “재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동절기 추가접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전주대비 35.8% 감소했으며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3.3% 줄어든 463명이다.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25%, 수도권 24.1%, 비수도권 26.8%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평균 32.6%로 지난주보다 0.3% 포인트(p) 감소했다.

최근 4주간의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에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2.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이슬기자



‘봄이 다가오네요’

일출(춘) 절기를 사흘 앞둔 1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사

라봉공원 탐방로에 봄의 전령새가 활짝 피어 시선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 마을버스 노선 조정 검토

운영업체 ‘연료비 폭등·승객 감소’ 이중고 재정 지원 요구

광주 북구가 연료비 급등과 이용 수요 부족 등으로 경영난 위기에 처한 지역 내 마을버스에 대한 근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승객 수, 승하차·환승 수요를 조사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 등을 두루 감안한 노선 조정안이 나오는 대로, 광주시와 실무 협의를 한다.

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내 마을버스 3개 노선 중 최근 1년 사이 신설한 2개 노선 조정·대체 노선 발굴 관련 조사에 나섰다. 노선 운영업체 측이 차량 연료비(LPG가스) 폭등,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회사 재정이 어렵다며 손실액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선 조정 검토 대상은 788번(총 18.4km·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시화문화마을문화관), 799번(총 22km·살레시오고-김대중컨벤션센터역)이다.

788번 노선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부터 버스 9대가, 799번은 지난해 3월 2일부터 버스 6대로 운행 중이다.

북구는 구비 1170만 원을 들여 최근 신설된 788·799번 2개 노선에 대해 ▲승객 만족도 조사 ▲승객 수 ▲시간대·정류장별 승하차·환승인원 ▲민원사항 분석 등을 객관적 조사·분석하고 있다.

기존 노선 확정 당시 반영된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통약자 편의 제공 등 정성 지표도 충분히 감안한다.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노선 조정·대체 노선 확보안과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이는 광주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로 쓰인다. 이후 시·구와 운영업체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8월 788·799 마을버스 노선 조정안이 확정된다. 앞서 북구 마을버스 운영업체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777번 노선(15.2km·살레시오고-전남대)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손실액 일부를 지원 받았다.

시·구비로 코로나19에 따른 2년(2020~2021년)치 손실 산정액인 3억 5000만 원을 보전 받은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연료비 급등으로 업체의 적자 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업체가 지난해 또 다시 마을버스 3개 전 노선에 대한 손실 지원을 요청했고 운행 중단 위기까지 우려돼 근본 해법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최적의 조정안을 도출해 최근 1년새 신설된 2개 노선의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